

설날 가정 예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552장 다같이

1. 아침 해가 뜰 때 만물 신선 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 도가족중에서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16-18 가족중에서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살전 5: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설 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설교자

설날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덕담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살전 1:6).

둘째, 우리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골방이나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8). 이렇듯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련과 고통을 겪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19장 다 같이

1.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곁을 자 누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2.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곁을 자 누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곁을 자 누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기도 다 같이
식기도 가족 중에서

2024년

설날 가정 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부교회